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70.81 (-18.93)	↑ 코스닥	849.80 (+3.22)
↓ 금리 (미국 9년)	4.076 (-0.043)	↓ 환율 (한-달러)	1357.70 (-7.40)

“메가프로젝트 시작부터 ‘산단·정주여건 조성’ 묶어 추진”

李 대통령, 3차 민관 점검회의
“청년들 일자리 찾아 지역 몰리고
모든 지역·국민 혜택 누리는게 목표”

대한민국의 민·관이 힘을 합쳐 아쉽게 추진하고 있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인착을 위해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주거,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가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발전 모델’이 조성된다. 단순히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을 사업 초기부터 함께 설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지역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로,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후 처음 열렸다. 정주여건 조성 방안과 함께 남부권 반도체 벨트, 피지컬 인공지능(AI)·AI로봇 확산,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등이 주요 의제

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서두에 “지난2차례 회의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이슈를 중점 점검했다면,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의 취지가 기업 투자로 생긴 일지리를 통한 전국의 균형 발전이기 때문이다.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해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 내 청년과 학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생산거점으로서의 호남, 소재부품장비 거점으로서의 영남,



안세영, 여자 단식 ‘첫 2연패’

29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안세영이 기뻐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연패를 달성한 것은 안세영이 처음이다.

/뉴시스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서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삼성, 美 AI인프라 기업에 10억弗 투자

삼성전자 5억弗·삼성 5개사 5억弗 엔비디아와 ‘헬릭스’ 투자대열 합류

삼성이 엔비디아 등이 투자한 미국 AI 인프라 기업에 10억달러를 투입한다. 삼성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29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미국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5억달러를 맡고 나머지 5개사가 합쳐 5억달러를 투자한다. 계열사별 투자액과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헬릭스는 미국 투자회사 KKR이 지난 6월 출범시킨 AI 인프라 기업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아담 셀립스키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회사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가동에 필요한 발전, 광통신망 등에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 데이터센터와 전력·통신 인프라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헬릭스가 데이터센터와 전력 시설을 함께 투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력 공급이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I 서버를 설치할 건물을 지어도 전력 공급이 늦어지면 가동할 수 없다. 헬릭스는 발전 시설과 송배전망까지 확보해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공급에는 헬릭스의 초기 투자자

인 미국 전력회사 비스트라가 협력한다. KKR에 따르면 비스트라는 헬릭스의 우선 전력 공급 협력사다. 비스트라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과 체결한 전력 구매 계약은 5000메가와트(MW)가 넘는다. 또 다른 초기 투자자인 엔비디아는 AI 데이터센터 설계를 지원한다. 쿠웨이트투자청도 투자에 참여했으며 헬릭스는 출범 당시 100억달러가 넘는 장기 투자 약정을 확보했다.

삼성 계열사들의 사업도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걸쳐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AI용 반도체를 공급한다. 가전 부문은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을 통해 데이터센터 냉각 설비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데이터센터와 발전 시설의 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SDI는 정전시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백업 유닛(BBU)을 생산한다. 다만 이번 투자에 따른 계열사별 제품 공급 계약이나 수주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KKR과 삼성SDS는 앞서 지난 4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당시 KKR이 운용하는 펀드는 삼성SDS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1조2200억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삼성SDS는 확보한 자금을 AI 인프라와 AI 전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metro

車·전력망 겨냥 ‘고부가 소재’ 개발·상용화

석화업계, 범용제품 의존 줄이기
LG화학, 폭스바겐과 공동개발 나서
롯데케미칼, 울촌산단 생산거점 육성

석유화학업계가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전력망을 겨냥한 고부가 소재의 적용처를 넓히며 범용제품 의존도를 낮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제품 생산설비 재편과 함께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소재 공동개발 및 제품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범용제품의 수익성 회복이 늦어지자 보유한 소재 기술을 고객사의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상업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LG화학은 최근 폭스바겐그룹과 차량용 고부가 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고부가합성수지(ABS)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등 차량용 소재의 신규 적용 분야를 발굴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CR 소재의 적용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협력 범위는 폭스바겐그룹 산하 자동차 브랜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 국가산단.

/여수시

자동차용 플라스틱의 적용 확대와 함께 미래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LG화학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1조3175억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연·원료 기반의 저탄소 기술을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전자 재료와 고기능 제품을 주요 연구 분야로 두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전남 울촌산업단지를 기능성 소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연산 50만톤 규모로 조성 중인 컴파운딩 생산기지의 일부 설비는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자동차와 가전·정보기술(IT)용 고기능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향후 로봇과 항공우주용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의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품군 확대를 위한 기술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66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능성 소재의 상용화와 신규 적용처 확보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용 소재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전선업체 중텐테크놀로지(ZTT)와 132킬로볼트(kV)급 해상풍력용 습식 케이블에 쓰이는 가교폴리에틸렌(TR-XLPE)과 반도체 소재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TR-XLPE는 수분 침투로 케이블의 절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소재다.

형통그룹과는 초고압·해저·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용 XLPE 절연 소재와 반도체 차폐 소재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군사위성 우리 로켓으로 쏜다…우주청·국방부, 민·군 우주협력 확대
▲통일부, 북지뢰에 “필요 조치 검토…제반사항 규명 중요”

/사진 뉴시스

▲‘따릉이’ 등 공영 자전거 7만대 첫 돌파…청소년 사고 유일 ↑
▲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 전직 공무원 부당 채용”

▲경찰, 충주시청 압수수색…지방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전장연 대표, 1심 벌금형에 “앞뒤 다 자른 판결에 유감”